

29년 역사... '매출부진'에 오는 8월 폐업

# 현대백 부산점, 리뉴얼 후 재개점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 매출감소 7월 말까지 영업, 2~3개월 리뉴얼



현대백화점 부산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점이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7월말까지 영업한 뒤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올해 7월로 임대 매장들을 모두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한다. 업계는 지속된 매출 부진을 이유로 꼽는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1995년 8월 개점 이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유통업계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이 부산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는 기네스 기록까지 세우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부산에 잇따라 개점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실제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2012년부

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 3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013년 2900억원, 2014년 2571억원, 2015년 2241억원, 2016년 2115억원, 2017년 2057억원, 2018년 1920억원, 2019년 1707억원, 2020년 1498억원(57위), 2023년엔 1521억(61위)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부산의 백화점 점포 중에서 영업 면적은 제일 작다.

이 같은 이유로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7월을 기준으로 영업을 정지한다. 부산의 첫 백화점이라는 상징성으로 2016년 전층을 리뉴얼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매출때

문이다. 입점 브랜드의 계약 기간도 7월 31일로, 계약연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의 폐점설은 2022년에도 나온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3200억원을 투자해 3만평에 달하는 유통판매시설 부지 4곳을 사들이면서 현대백화점 부산점의 존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글로벌 3대 명품이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철수하면서 부산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폐점과 동시에 리뉴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부산점은 7월 말까지 영업한 뒤, 2~3개월간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재개점을 통해 기존 점포보다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백화점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거나 상권을 고려한 신개념 형태로 변경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중진공, 中企 정책자금 1250억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에 750억 투입 투자조건부 용자에 예산 500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에 따라 투융자 방식으로 12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과 '투자조건부 용자' 500억원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 중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 내 '매칭투자' 지원규모는 250억원이다.

올해 중진공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유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칭투자' 방식과 '투자조건부 용자'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직접투자 ▲매칭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중진공이 유망기업을 직

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한정해 지원한다. 매칭투자는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로 최대 1배수 이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규 도입한 '투자조건부 용자' 방식은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용자(우대금리 0.3%p)를 지원해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이 용자 지원 시 용자총액의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강석진 이사는 "중진공 투융자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데스밸리 구간의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레전드50+' 사업에 3년간 8400억 지원

중기부-17개 광역자치단체 맞손 6개 사업 참여할 135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중기부는 10일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6개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앞서 수도권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 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원사업

에는 올해 2780억원을 포함해 3년간 약 8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레전드50+'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자격도 완화해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허들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를 면제받는다. 기업심사 단계에선 제출서류도 29개에서 15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외에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를 생략해 '레전드50+' 참여기업들은 좀더 쉽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별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은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주력산업 기업지원, 그리고 창업진흥원은 창업중심대학을 각각 담당한다.

프로젝트참여기업은 이들 주관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 50+'에 1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중소기업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레전드50+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354개사가 3년 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탄실히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청호나이스 케어마스터가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있다.

## 청호나이스, 7단계 매트리스 케어 선배

美 홈케어 브랜드 컬비사 장비 도입

청호나이스가 황사철을 맞아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선배 관심이다.

10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명품 홈케어 브랜드 컬비사의 전문 장비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케어마스터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살균 공법

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총 7단계인 ▲오염도 측정 ▲프레임 케어 및 워싱 ▲매트리스 사이드 케어 ▲매트리스 바디 케어 ▲진드기 기피제 코팅 ▲UV 스틱살균으로 진행한다.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렌탈 구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매트리스 고객도 받아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전문 디자이너에 홈스타일링 받으세요"

한솔모두의봄, 디자이너 패키지 선배

온라인 토털 인테리어 플랫폼 '한솔모두의봄'을 운영하는 한솔모두의봄이 고객들에게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공하는 '한솔모두 X 디자이너 패키지'를 선보인다.

10일 한솔모두의봄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봄을 맞아 리모델링과 홈스타일링을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솔모두의봄 패키지 상품을 통해 고객들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상담을 받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실내 디자인, 각종 소품,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시공부터 AS(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패키지에서 협업할 디자이너는 오늘 의집, 인스타그램 등에서 홈스타일링으로 유명한 '다나홈(Dana Home)' 이다. 다른 디렉터와 우리나라 1세대 홈스타일리스트인 '리타홈(Lee.ta Home)' 이선영 실장 등이다.

한솔모두의봄은 본사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자체 유통부터 시공, 하자 보수까지 직접 서비스해 디자인 변경 후 다른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타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 교원투어 '발칸반도 3국 패키지' 출시

'올웨이 위드 티웨이 9일'

교원투어 여행자가 색다른 유럽을 느낄 수 있는 발칸반도 3국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10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올웨이 위드 티웨이 9일'은 색다른 매력을 지닌 발칸반도를 찾는 상품이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예약과 동시에 출발이 100% 확

정되며 오는 5월 16일 첫 출발한다.

이 상품은 신규 취향한 티웨이항공의 인천~자그레브 노선을 이용한다. 버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유 있는 일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일정 4성급 호텔에 숙박하며 현지 특식으로 송어구이와 체밥 치치, 해물 스파게티 등을 제공한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자그레브 대성당과 성 마르크 성당, 반 엘라치치 광장 등을 관광한다. 여기에 도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에서는 고풍스러운 시가지를 둘러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윈시림으로 꼽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는 트레킹을 즐기면서 천혜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발칸반도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슬로베니아에서는 수도 류블랴나를 비롯해 알프스 빙하가 녹아 생성된 푸른 빛의 호수 블레드 호수,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포스토이나 동굴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